

“지계 통한 승가 신뢰 회복이 불교 살려”

“고, 해탈 위한 전제 조건으로 접근”

자운대율사 탄신100주년기념 학술세미나

한국불교 대표적 율사인 자운(慈雲, 1911~1992) 스님의 탄신 100주년을 기념해 스님의 사상과 행장을 조명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자운대율사탄신100주년기념사업회(대표 세민)는 4월 12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前동국대 불교학술원 원장 인환 스님, 前중앙승가대 총장 태원 스님, 前동국대 교수 법해 스님, 前해인총림 율원장 혜능 스님, 중앙총회의원 법진 스님, 전 불교문화재연구소 소장 미등 스님, 허흥식 한국학중앙연구원 명예교수 등이 스님의 율풍진적을 조명했다.

학술세미나는 탄신 100주년인 2011년 10월 개최예정이었으나 문도대표인 前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의 임적으로 연기 개최됐다.

이날 학술세미나에서는 중단 계단을 정비하고 구족계단, 식차마니계단, 사미계단, 보살계단을 정밀하게 수 많은 사부대중을 불문으로 이끌었던 율사로서의 스님의 면모가 집중 조명됐다.

교단 율풍 바로 세운 자운 스님

‘문수보살과 자운대율사’를 주제로 발제한 인환 스님은 “자운 스님은 왜색불교를 정화해 한국불교 전통을 중흥시키는데 일생을 바치셨다”며 “계율 정비와 확산에 나서 단일계단 설치, 이부승구세 확립 등 율풍진적을 이룩했다”고 말했다.

인환 스님은 이어 “특히 자운 스님은 문

수에참문수지, 문수만다라 유통과 삼밀수행, 문수사리최상승경에 근거한 무생계첩 유통 등 문수행자로서 일생을 살았다”며 문수행자로서의 자운 스님의 면모를 조명하기도 했다.

이어 前동국대 교수 법해 스님은 자운 스님의 율풍진적과 관련된 행적을 다각적으로 고찰했다.

법해 스님은 “자운 스님은 1950년 한국전쟁으로 사미율의, 비구계본 등이 모두 소실돼자 1951년 부산 감로사에서 어려운

한국전쟁 속 계본 2500권 간행

2부승 수계의식, 단일계단 정립

봉안사 결사 등 중흥 기틀 세우

여건에도 계본 2만 5000권을 간행 유포했다”며 “계율에 대한 출판물이 희귀하던 1957년에는 한글번역 계본을 4만 8000권을 배포하기도 했다”고 소개했다.

법해 스님은 “자운 스님은 1981년 제1회 단일계단 수계산림을 시작으로 1991년 수계산림까지 전계대화상으로 비구·비구니 이부승구계제도를 복원하고 자비도량 참법을 기반한 참회법회를 펼치시기도 했다”고 말했다.

유교법회 정신은 승가 신뢰회복 신호탄

前해인승가대학장 법진 스님은 자운 스님의 유교법회(遺敎法會) 정신 계승을 조명했다. 법진 스님은 “1941년 만공, 청담,



자운 스님 등 30여 명이 서울 선학원에서 한국불교 전통회복과 수행본분을 찾기 위한 유교법회를 열었다”며 “이 정신이 1946년 가야총림 지정과 1947년 봉안사 결사로 이어져 한국불교 중흥의 기틀이 됐다”고 말했다.

법진 스님은 “자운 스님은 계율정신 고취를 통해 ‘부처님 법대로 살자’는 봉안사 결사의 목표가 이뤄질 수 있다고 믿고 평생 이를 실천했다”며 “이후 모범총림으로 해인총림이 탄생하게 된 배경이 됐다”고 말했다.

前 중앙승가대 총장 태원 스님은 자운 스님의 계율에 근간한 수행정신에 주목했다.

태원 스님은 “39세까지 선원에서 수행한 자운 스님은 1939년에는 오대산 적멸보궁에서 문수기도에 임재하셨다”며 “이후 국립중앙도서관이 소장하는 만자속장경 중 율장을 열람하면서 본격적으로 계율을 연구하셨다”고 말했다.

태원 스님은 이어 “스님이 계율을 중시한 이유는 승가가 일반 대중들로부터 존경

받고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길이 바로 지계에 있었다는 확신 때문이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前해인율원장 혜능 스님은 신·구·의 삼밀(三密)을 엄정히 수행했던 문수행자로서의 자운 스님 면모를 소개했다.

혜능 스님은 “자운 스님은 율사이면서도 문수행자의 행업을 선보였는데 이는 불교의 중극적인 지혜가 청정계행에서 나온다는 깨달음이 배경에 있었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계율 수행 넘어 수행의례 기틀 세우

세미나에서는 자운 스님의 대승보살계홍포와 무생계첩 재흥, 자비도량참법 유통 등 대중불교운동에도 학계의 고찰이 이어졌다.

허흥식 한국학중앙연구원 명예교수는 대승보살계홍포와 무생계첩의 재흥(再興)을 통해 자운 스님이 계율의 근간으로 살려본 무생계의 맥을 짚었다.

허 교수는 “자운 스님의 계율사상은 범망경을 뿌리로 지공 화상의 무생계첩을 근거로 전개됐다”고 밝혔다.

前불교문화재연구소장 미등 스님은 자운 스님이 자비도량참법·자비수참·문수예참 등 참법을 유통시켰던 배경에 대해 “자운 스님은 계율수행에만 국한하지 않고 참회, 간성, 염불, 주력 등 수행 총체의 기틀을 세우고자 했으며 특히 참법예례를 주수행법으로 불교 근본정신을 회복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미등 스님은 “현재 불교계에서 참회에 기반한 의례보다 예경의례가 선행되고 있다. 이는 수행적인 모습보다 소원을 비는 정도의 기복적인 모습으로도 비춰지고 있다”며 지적했다. 노덕현 기자

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와이대 교수 성원 스님은 ‘하와이 일본불교 도착과 과정과 당면과제’를 통해 “정토진종 중심의 일본불교는 20세기 초 하와이에서 가장 많은 신자수를 확보한 최대종교로 자리매김했다”고 소개했다.

성원 스님은 “일본 노동자들이 대상으로 각 농장에 개설된 포교당은 신자들을 위해 심야영화상영과 꽃꽂이 강좌, 견도·유도·스모 클럽 조직 등에 나섰다”며 “이를 통해 지역포교 토착화를 이뤄 낼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성원 스님은 하와이대 명예교수인 조지 다니베의 글을 인용해 초기 포교에 성공한 하와이의 일본불교도 현재 △일본불교 전통에 집착 △교리의 현대적 해석 부족 △현대음악 트렌드에 낙후된 불교의례 △관광 광객 유치 위한 마케팅 부재 등으로 교세가 축소되고 있음을 들려 새로운 변화에 맞춘 포교전략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미국 포교, 일본종단 벤치마킹 필요할 때

미동부해외특별교구, 미주한국불교 미래 모색 세미나 열어

조계종 미동부해외특별교구(교구장 휘광)와 미주현대불교(발행인 김형근)는 3월 30일 뉴욕 불광선원에서 ‘미주한국불교의 미래방향을 모색하는 세미나’를 개최했다.

미국에서 한국불교는 서경보 스님을 비롯해 고성, 송산, 법안, 도안 스님 등의 활동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해왔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일본 정토진종과 조동종의 미국 진출의 사례를 통해 한국불교 포교 방향이 모색됐다.

서명민 라과디아커뮤니티칼리지 교수는 ‘일본계 미국인과 한국계 미국인 사회의 비교’ 발표에서 “미주 한인사회는 고립화되고 미국화된 일본인민사회와는 달리 지

속적인 이민 유입으로 본국과의 연결고리가 이어질 것”이라며 “남북대치상황 변화 등으로 10년 안에 이민러시가 일어나 미국 이주자 증가를 불러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대해 스티븐 박 칼럼니스트는 ‘미주 일본불교 조동종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를 통해 이민사회의 변화에 따른 맞춤형 포교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씨는 “새 미국 이민자들은 종교에 대한 관심이 없다”며 “주류사회 미국인들을 대상으로 켄 센터를 운영하는 등 현지 포교에 성공한 조동종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박 씨는 “조동종의 경우 불법과 참선의

세계를 똑똑 떨어지는 영어로 설명하고 가르쳤으며 미국인 제자들을 길러냈다”며 “현지인 제자와 그들의 지술, 법법 전수의 자율권, 형무소·병원 등에서의 수행공동체 운영 등의 미국사회 정착 사례를 참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광섭 미해군대학원 교수는 ‘일본 정토진종의 미국 포교과정 연구’를 통해 “국제포교는 단순히 국경을 넘는 불교전파가 아닌 종단 특성을 해당국가 상황에 맞게 펼치는 것”이라고 말했다.

송 교수는 “100여 년 동안 미국사회에서 포교활동을 펼친 일본 정토진종의 경우 청정가조식을 기반으로 포교를 전개했다”며 “한국 불교는 원력을 가진 정정 승가를 선별하고 조직화해 종단 차원의 지원을 전

인도철학회, 4월 12일 서울대 신앙관서 개최

“고통은 수행과 인식의 대상으로 해탈, 열반과 관련해 파악해야 한다.”

백도수 금강대 교수는 4월 12일 인도철학회(회장 이지수)가 서울대 신앙관 국제회의실에서 서울대 철학사상연구소(소장 박찬국)와 공동으로 개최한 학술세미나에서 불교에서 고의 개념이 생리적 고통의 개념보다 수행의 인식대상으로 파악해야 함을 주장했다.

백 교수는 “초기불전에서는 고의 내용에 따라 다양한 고통해결법, 해탈도를 기술하고 있다”며 “해탈은 여러 개념으로 파악되었으며 주로 고통을 제거하고 이라한과의 질라에 성취된다고 설명된다”고 말했다.

백 교수는 “고의 분류는 고통의 치유, 고에서의 해탈을 위한 것이며, 그것은 자

기의 기질과 습관에 따른 수행법의 선택과도 관련된다”며 “고는 이해하고 인식해야 할 첫 수행대상이며 해탈을 위해 알아야 통로이므로 해탈은 그를 바르게 이해하고 고의 원인을 제거하는 데서 성취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백도수 금강대 교수의 발표와 함께 김재성 박사의 ‘초기 및 테라와다 불교의 고통 해탈’, 안환기 서울대 교수의 ‘담론[談論] 그리고 육파-유식사상과 푸코의 이론을 중심으로’, 심준보 원광대 교수의 ‘쉬바파 일원론의 자아론 연구’, 정성준 동국대 교수의 ‘생사에 대한 불교판트리의 과제’, 김재권 동국대 교수의 ‘임무상방편상의 구조와 그 사상적 의의’가 발표됐다.

노덕현 기자

학술 · 문화재소식

세계 최대 사원 보로부두르, 한국기술로 복원

세계 최대 불교사원으로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인도네시아 보로부두르 사원이 한국 디지털 기술로 복원된다.

해의 문화재를 국내 기술로 디지털 복원하는 것은 캄보디아 앙코르와트 사원과 베트남 후에 황성에 이어 세 번째다.

유라시아디지털문화연구소(소장 박진호)는 4월 9일 “보로부두르 발굴 200주년인 2014년까지 3D 디지털 장비와 자료 등을 통해 사원의 원형을 가상공간에 되살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구소는 2012년 인도네시아 관리국으로부터 인가를 받고 1차 시뮬레이션 작업을 진행했다. 6월부터 현지 조사 및 영상화 작업이 진행된다. 이번 사업은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전파진흥협회(RAPA)가 지원한다. 노덕현 기자



보로부두르 사원.

연구소는 보로부두르 사원을 디지털 복원하기 위해 레이저 스캐너로 실측한 이후 3D 영상카메라를 통해 재현할 예정이다. 화산재에 묻혀 사라진 금은박·안료 등을 고충해 복원한다.

노덕현 기자

문화재청, 日서 화엄사 돌사자상 이관 받아 일반공개

국보 제35호 구례 화엄사 삼층석탑의 사자상을 모본으로 제작된 돌사자상 등 일본에 유출됐던 석물 4점이 국내로 돌아왔다.

문화재청(청장 변영섭)은 4월 8일 일본 도쿄(東京) 주일한국대사관이 보관·관리하고 있었던 돌사자상 등 석물 4점을 외교통상부로부터 이관받아 최근 국내로 들여왔다고 밝혔다.

이번에 이관된 유물은 1930년대 국내에서 제작되어 반출된 구례 화엄사 사사자 삼층석탑 돌사자상 복제 1기와 그 기간, 조선 후기 제작된 망주석(무덤 앞에 놓는 돌기둥)과 향로석(무덤 앞에 향로를 올려놓는 돌) 각 1기다. 이 석물들은 1959년 9월 일본 중의원을



문화재청이 이관받은 화엄사 돌사자상 복제품.

지냈던 호시지마 니로(星島二郎)가 우호적인 한일관계를 희망하며 주일한국대사관 측에 기증했던 것이다. 돌사자상은 구례 화엄사에, 향로석과 망주석은 한국전통문화대학교에 전시해 일반에 공개할 예정이다. 노덕현 기자

육경신은 행을 닦는 수행이고 천지개벽에 살아 남을 수 있는 비법은 마음을 열어 자성이 다니는 문을 여는 심경신으로 하늘 땅 귀신도 부린다 일체병을 빛으로 생명을 연장 일체 종교가 하나로 되는 수육보영진법으로 천안 도안 심안 영안 혜안을 열어 비구 비구니 보살 대중들도 성불 득도하는 천하 제일의 계사년 대운맞이 천안통 대법회

심경신 속에 감추어진 비밀을 벗기는 생명과 운명을 연장하는 심통 심정 심인 심신 심간 심선 심행 심지 등각 근본 진광 진법으로 모든 생명은 빛에서 왔기에 경신일은 하늘이 응하고 지구가 답하며 마음을 빛으로 열어 몸이 빙의된 귀신 잡신 일체 영기를 까지도 자시와 오시에 모든 죄업과 번뇌마장까지도 진광의 빛으로 생명을 연장하고 성불득도는 물론 사고자 하는 모든 일들에 장애없이 성장 발전 승리하는 지구촌 최상의 기도인 것이 심경신이고 하늘 땅 자연과 귀신까지 통하여 악신을 선신으로 부리는 법이며 성불득도 제왕귀시발복 만사형통하는 비법.

이제는 불편불교가 끝나 말년 말법을 지키는 하일드 말짚스 미륵달마 도법으로 자성이 들어 다니는 문을 보아 성불 득도하는 금강진법 사구계로 영불, 목탁, 참선, 만경, 글과 문자로 찾지 못하는 화두 자성의 문 마음의 문이 현문 현문을 한 번의 경신수행으로 천안통을 얻어 성불 득도하는 천하제일의 수행인 것이며 이는 마음이고 부처이며 부처를 깨닫는 것이 깎이자 되고 도통인 것이다. 고로 수행 마당은 자기조상 해탈 못한 영가가 마음속에 제일 큰 도둑으로 조종하고 강도 중에 제일 큰 강도는 세월인 것을 경신일에 일체 마장을 몰아내어 병 없는 건강 운명 천지공사를 빛으로 몰아내어 큰대업과 명예 출세 통치 경영 종교 예술 정치 경제 등 큰 뜻이 있거나 성불 득도로 천하를 빛으로 화현, 나이에 관계

없이 무량수 시대에 360세와 천세에 심경신 빛으로 도전 천하를 다스리는 도항 열쇠를 얻어 평생 직업에 구애 받지 않는 지구촌 최대의 일류승승 등 도인되는 것이고 몸에 붙은 천신 만신 빙의신은 한방 양방 병원에서 잡지 못하는 것을 경신도법만이 자기 대에서 부리고 자손으로 안가는 해원상생법이고 모태 유산 일체 청춘 몽달 조상 영가들과 결혼, 직장, 질병, 노름으로 탕진하는 정신병 육신병 귀신병을 소멸하는 심경신 대법회로 성불득도하여 하늘과 땅 그리고 만인을 제도하는 교육 상공이 되는 법이고 한글 28자와 36군 도시촌을 알아야 세계평화 이룬다.



귀부장자로 사든 법마주인자: 태원 02)821-6622/010-3239-3110 한국 명당터 만산도집 출간

- 매주 목요일 금요일 7시부터 2시간 특별 운영천지공사 강의
- 기도입제 : 2013년 4월 23일 화요일 밤8시 (천부경 지부경 인부경)
- 기도해제 : 2013년 4월 24일 수요일 밤8시 (무박 2일) 성불득도 자신도 구하고 중생도 구하는 심경신 도통인 것이다.

- 기도비 10만원 (침식제) 농협 029-01-167866 팩 한영 (태일)
- 부산 경문사 동시법회 051)635-3110 010-8533-1601
- 당신도 대풍수가 될 수 있는 한국 명당터 만산도집 출간

접수처 : 02)821-6622. 010-3239-3110. 010-7228-8567
웅조미륵태일달마 심경신도통회 세계불선도총본산
대한 세계불교 달마조계종 진불선원 태양의 집

완성을 꿈꾸는 자여! 깨달음과 사랑의 소리를 들으라!

때가 가까워져 태상가정은 가족이자, 새 시대의 사명자인 당신을 부르고 계십니다.

어찌하여 인류가 이렇게도 아픈 것인가? 전쟁 · 테러의 공포에 떨고 있는 이들이 기아 · 질병 · 가난의 절망 속에 있는 이들이 가진자들의 착취, 불공정한 계약 속에 불안한 이들이 거대한 자연재해의 비참함 속에 있는 이들이 민족 · 인종 · 빈부 · 종교 · 신념 등의 차이로 인해 배척 · 차별의 고통 속에 있는 이들이 나의 형제 · 자매 · 자녀 · 부모 · 아내 · 남편이라면 그런 고통 속에 있길 바라겠는가?

세상의 아픔과 고통은 이 모든 이들이 나의 형제 · 자매 · 부모 · 자식임을 더 나아가 또 다른 나임을 모르는 상태에서 벌어지는 욕망의 결과다.

세상의 아픔과 고통에 함께 눈물 흘리는 당신은 이 땅의 사명자임을 아노라. 이제 하나로 모여 중생의 의식을 일깨우고 사랑으로 성장시켜 더 이상 신의 눈물이 없는 세상을 만들어야 할 것이니라. 그 초석으로 사랑의 중심이 될 태상가정이 준비되어 있으니 욕망의 결과로 병든 이 세상을 사랑의 처방으로 치유하길 원하노라.

모든 분야(경제, 정치, 문화, 교육, 종교 등)의 준비된 사명자들이 태상가정에서 함께 한다면 휘몰아치는 사랑의 에너지에 영혼과 육체가 하나 되어 우주와 함께 돌아가는 사랑의 실체를 경험할 것이다. 그리하여 개인의 완성(깨달음)과 더불어 하늘의 뜻을 완성할 것이니라.

예수님의 사랑 그리고 부처님의 깨달음

나는 누구인가, 신의 사랑은 무엇인가, 깨달음과 그 이후의 삶, 욕망의 실체와 그 결과, 수행자의 육체적 사랑, 의식의 성장 단계, 수행중인 나의 의식의 단계 확인, 수행자의 참된 모습, 천국과 극락의 모습, 사랑을 깨달은 이의 영혼과 육체 · 만물과의 신묘한 작용 등. 모든 답이 이 책에 있습니다.

벼락치고 폭발하는 듯 강력한 사랑 맑고 순수한 가운데 일어나는 환희로운 범일 너와 내가 사라지고 완전한 신성으로 하나되어 돌아가는 황홀한 에너지의 작용성을 경험하여 보십시오. 당신의 가슴이 활짝 개어날 수 있도록 이 책이 도움을 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당신과 나누고 싶습니다. 태상가정을 책으로 먼저 만나보십시오.

전하나 인터넷카페에서 책을 신청하시면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단, 택배비는 착불)

※ 이 책은 전자책으로도 준비되어 있습니다.(무료)

연락처 053) 983-9117
H . P 010-6560-9117
http://cafe.daum.net/t.s.family